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이어 온 '지산축구대회' 아시나요

1921년 추석 우치-본촌면 공차기 시합...6·25때도 열려
1957년 광주 편입 후 복구 건국동·양산동서 대회 이어와
항일운동 역사 깃든 지산축구대회 100주년 기념비 제작

전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지산(芝山)지역 한 마당 축구대회' (지산축구대회) 100회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다.
2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서는 '지산축구대회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기념비는 100회를 맞은 지산축구대회를 기념하고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지산체육회가 세웠다.
광주시 북구 건국동과 양산동 일곱동을 아우르는 지명인 지산의 이름을 딴 축구대회는 1921년 8월 15일(추석) 우치면과 본촌면의 공차기 시합으로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추석 명절 지역민과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의 한마당을 위해 창설된 축구 대회는 6

·25 전쟁 중에도 열렸다.
지산축구대회는 1929년 개최된 경평(서울과 평양) 축구대회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선수 구성은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규모가 큰 마을은 2-3개 팀이 출전하기도 했지만 작은 마을은 선수가 부족해 고향을 찾은 친척들이 선수로 나섰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축구공도 없어 벗짚이나 천으로 등글게 만든 공을 차기도 했다. 골대도 나무로 만든 탓에 공에 맞으면 부러지기까지 했다.
쉬는 시간에 부서진 나무골대를 수리해 경기를 재개하기도 했다.
열기도 뜨거워 축구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주민들 모두 일손을 놓고 장구와 팽과리를 두드리며 흥을 북돋았다. 마을 승리를 위해 너도나도 음식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서 '지산축구대회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을 만들어 화합의 중심점이 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징병·징용을 거부하는 항일운동의 장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을은 상품으로 받은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도 벌였다.
1957년 광산군 지산면이 광주시로 편입돼 현재는 광주시 북구 건국동, 양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지산초와 양산초, 광주북초, 주암초 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같은해 '지산 축구대회'에서 '지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로 명칭도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정부의 코로나 19방역 조치에 따라 창설 이래 처음으로 축구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 100회 지산 축구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북구는 2014년 제93회 지산축구대회부터 대회 개최 보조금(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0주년 행사 때는 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동운 지산체육회장은 "대회 100년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빛원전 영향평가 주민 공람 보류 지자체 입장 번복 왜?

영광·함평군 등 초안 공람 결정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행정소송에 밀려 주민안전을 방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앞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곳(영광·함평·무안·장성·고창·부안) 중 고창을 제외한 지자체가 주민 공람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무안과 장성은 지자체 검토 후 초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민 공람을 결정했으며

현재는 공람 기간에 받은 주민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상태.
나머지 4곳의 지자체는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중대사고 대응계획' 등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보완요청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17일 초안 공람을 결정하지 않은 영광, 함평, 고창, 부안군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을 제외한 영광과 함평, 부안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후 4달간 보완요청을 통해 보류했던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영광군은 이날 25일 주민 공람을 시작했고 함평군과 부안군은 내부적으로 주민공람 결정이 내려진

상태.
환경단체는 한수원의 법적대응에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로 바꾼 것에 대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꿔 주민공람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수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공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고창군은 현재까지 한수원에 3차례 보완요청을 했으며 한수원의 소송권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 서둘러야"

택시 노동자 촉구

광주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택시 월급제'를 앞두고 시행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광주본부(노조)는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시에 우선 시행됐다. 올해 8월 24일부터는 전

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조는 "서울에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승객 탑승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월 100만원만 지급하는 등의 임금체불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2022년 기준 법인택시는 영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수 1위, 일반 차량 사고율 8배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0년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병폐는 계속되고 있어 택시 노동자 스스로 과속과 난폭, 불친절 운전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당신이 복구 광주 복구, 전국 첫 참여·확장형 도시브랜드 공개

광주시 복구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확장 가능한 도시브랜드 '당신이 복구' (사진)를 공개했다
29일 복구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진흥원의 협업과 주민참여로 제작한 복구의 새 브랜드인 '당신이 복구'를 다음달 1일 '복구 도시브랜드 선포식'에서 선보인다.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상징이다. 복구는 도시브랜드 부재와 심볼마크·캐릭터 부재와 차별화된 도시 비전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해소하

기 위해 이번 브랜드 제작을 진행했다.
이번에 탄생된 '당신이 복구'는 '당신'과 '복구'의 연결로 구민과 복구의 밀접한 관계성을 의미한다. 하트모양의 디자인은 'You are Bukgu'의 'Y'와 'B'를 결합해 형성화한 것이다. 특히 '당신이'와 '복구' 사이에 주민이 생각하는 복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을 수 있어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복구는 향후 공문서와 표창장, 명함 등 적용이 쉽고 홍보효과가 큰 공공분야에 도시브랜드를 접목할 계획이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브랜드 참여 플랫폼과 관련 이벤트를 개최해 지역 사회 도시브랜드를 확대 시킬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복구문화센터에서 복구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열린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복구가 지난해 구민의 날 공개한 새 캐릭터 '부끄&부부' 도시브랜드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목포북항 상인회 해수관 설치·사용 '적법'

항소심서 토지 소유주 패소

해수관이 설치된 국유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우던 소유주가 상인들을 상대로 해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목포 북항 상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수관 철거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목포 북항 인근 횡집 등을 운영하던 상인회는 해산물 유통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바닷물을 끌어오는 해수관을 국유지에 설치해 사용해 왔다.
A씨는 2014년 이 국유지를 사들여 상가를 짓

고 2016년에는 토지 아래를 관통해 매설된 해수관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철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상인들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해수관을 매립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해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사용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국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승낙 아래 상인들은 해수관을 적법하게 설치·사용했다"며 "해수관이 우수관 내에 설치돼 있어 현재 소유자들의 대기 점유·사용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